

# ‘BIXPO 2015’세계 전력 신기술 ‘빛가람’에 모인다

## ‘BIXPO 2015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 10월 12일~14일 광주서 개최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 가속화, 전력기술 국제적 교류의 장 마련

최근 2년 사이 WEC(세계에너지협회 총회), CEPSI(아·태 전력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전력분야 국제 기술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전은 2015년 나주 빛가람 새 시대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BIXPO 2015’(Bitgaram International Exposition of Electric Technology,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를 개최한다.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2,000여명의 전기·전력 분야 기업 및 전문가가 참가하고 전시부스 200여개가 운영되며, ▲신기술 전시회 ▲국제 발명대전 ▲국제 컨퍼런스 ▲전력회사 CTO(Chief Technology Officer) 포럼 등이 개최된다. 국내외 전력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업이 총집결하는 ‘BIXPO 2015’는 한전이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력분야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 가속화

전기·전력 분야의 대규모 신기술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종합 박람회인 ‘BIXPO 2015’는 나주로 이전한 한전이 광주전남권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실리콘밸리(미국),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스웨덴), 소피아 앙티폴리스(프랑스), 중광촌(중국)과 같이 세계적인 전력산업의 Hub로 성장시키고자 한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클러스터이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현재 (주)효성을 비롯한 32개사 유치를 확보했으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 500개 유치 및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전의 구상에 BIXPO 2015는 강력한 추진 동력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BIXPO 201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빛가람 에너지밸리’가 대한민국의 新 에너지 수도 및 에너지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전력기술 국제적 교류의 장 마련

‘BIXPO 2015’는 국내 전력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계 산·학·연 전문가 및 유망 기업들의 전력 기술자들이 총집결하여 국내 전기·전력 분야의 최신기술은 물론, 전력기술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의 전력신기술 방향 대해 상호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 및 각종 전력회사 CTO(최고기술경영자) 포럼 등을 통해 기술 네트워킹을 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전력산업은 BIXPO를 계기로 크게 부흥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 업계 관계자도 있을 만큼, 전력산업 종사자들이 BIXPO 2015에 거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 글로벌 전력 축제 ‘BIXPO 2015’, 전력산업의 미래를 보다

국내외 신기술 및 발명품 한자리에... 신기술 전시회, 국제 발명대전  
‘전력산업의 미래 토론’ 전력회사 CTO 포럼 등 국제 컨퍼런스도 주목

‘BIXPO 2015’(Bitgaram International Exposition of Electric Technology,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는 전력분야 신기술 전시회와 국제발명대전 국제 컨퍼런스가 대규모로 동반 개최된다. ‘신기술 전시회’는 국내외의 우수한 신기술과 R&D 성과물이 전시되며, 전력분야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등 유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발명대전’에서는 해외 발명품 전시와 대학생 공모 발명품 및 개인 발명품도 초청되어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하게 된다. ‘국제 컨퍼런스’는 30여 개국 CTO (최고기술경영자) 및 CEO가

참가하는 포럼을 비롯해 글로벌 R&D, 스마트그리드, DC 배전, CCS(탄소포집저장), 미래기술 등 10개 분야를 주제로 전기전력분야의 해외석학 등이 참여하여 전력산업의 현재를 진단, 미래를 예측하여 전력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환영 리셉션, 개회식, 전시장 개막식, 문화의 밤, 국제 발명대전 시상식 등 공식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된다.

### 전력산업의 현재, 미래를 한눈에 : 신기술 전시회, 국제 발명대전

10월 12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 2전시장에서 열리는 '신기술 전시회'는 국내외 8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전력분야 신기술을 선보이며 해외 신기술관과 국내 신기술관, 기술사업화관과 전기역사 테마관 및 미래기술 체험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 전력연구소(EPR)를 비롯해 ABB, Alstom, GE, 3M, Doble, 미쓰비시히타치 등 전기·전력분야 세계 메이저 기업의 우수 신기술과 R&D 성과물이 해외 신기술관에 전시되고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 일진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신기술을 보유한 46개 중소기업 등 유수의 기관·업체가 참여하여 각 기업의 전력분야 최신 신기술을 국내 신기술관에서 선보이게 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의 트렌드를 접하게 된다.

같은 기간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국제 발명대전'은 국내외 전력 기업과 발명가협회 등의 우수 발명품과 함께 국제대회 수상작 및 우수성과물들을 만나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기·에너지를 주제로 발명품 테마관을 갖추어질 예정이다. 국제 발명대전에 전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 신기술에 대한 예측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명동아리 경진대회, 발명교실, 발명대전 시상식 등 기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 전력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다 : 국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는 전력회사 'CTO포럼' 및 10개 분야의 '신기술 컨퍼런스'로 구성된다. 10월 13일 다목적 1홀에서 개최되는 'CTO포럼'은 '전력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과 '전력산업의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력회사 및 제3사의 CTO(최고기술경영자) 또는 CEO가 참여한다. 'CTO포럼'이 전력분야의 최고 경영자가 참가하는 자리인 만큼 전력기술의 방향과 전략, 전력기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해외사업 및 기술교류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R&D, ISG(국제스마트그리드), 발전 신기술, DC배전 등 10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신기술 컨퍼런스'는 200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 올리히 연구센터 피터 그윈버그 교수 등 국내외 전기·전력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하여 전력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가 진행된다. 그밖에 특히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광주전남지역에 특화된 에너지밸리 세션 등 스페셜 세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네트워크와 축제의 장 : 다양한 공식행사 마련

이 외에도 다양한 공식행사로써 'BXPO 2015'의 의미를 공유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환영 리셉션과 개회식, CTO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문화의 밤이 열리며, 발명동아리 경진대회 및 국제 발명대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등으로 네트워크와 축제의 장이 되도록 꾸민다. 참여 기업 및 단체의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시찰도 계획하고 있는데 ESS(에너지저장장치), HVDC 변환소 등 전력설비 견학을 중심으로 하는 Technial Tour와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탐방에 나서는 Culture Tour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전력 분야 기술력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BXPO 2015'는 나주 빛가람 시대 개막과 더불어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을 가속화하여 빛가람 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 단지로 성장시키고, 국제적 전력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전력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EA

